

보성군 - 베트남 박리에우성, 계절근로자 송출 본격 추진

박리에우성 부위원장 보성 방문, 농어업 인력·문화교류 확대 기대... 농가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

보성군은 지난 1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위해 베트남 박리에우성 인민위원회 후인 지응웬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7명을 보성군에 초청해 교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회는 농어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국제 협력 확대, 보성군과 박리에우성 간 첫 공식 교류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우호 방문을 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군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는 약 1,40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기준에는 국내 체류 외국인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베

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라오스 등 송출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농가 수요에 맞춘 인력 배치와 함께 인권 중심의 근로 환경 조성 및 관리 시스템 강화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이번 교류를 통해 송출국 다변화, 계절근로자 수급 안정화, 글로벌 농어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향후 두 지역 간 실무 교류, 현지 교육 협력, 문화 교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 후속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앞으로도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에는 베트남 출신 근로자가 가장 많으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농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라며, "앞으로도 인권을 최우선으로, 외국인 근로자께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인 지응웬 부위원장은 "보성군이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터가 돼 감사하다"라며 "한국어 교육, 농업기술 연수, 한국 문화 이해 교육 등 송출 전 준비 과정을 체계화해, 더욱 우수한 인력이 보성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시적 인력 교류를 넘어 보성과 박리에우성 간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깨끗한 장성군 모습 보여드릴게요” 10일 일제 대청소... 17일까지 환경 정비 지속

장성군이 지난 10일 전남체전·전남 장애인체전 개최를 맞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전남체전 개최 8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환경정화 활동에는 군 공무원과 유관기관·사회단체·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등 200여 명이 동참했다. 참가자들은 좁고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청결한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탤다. 수거된 쓰레기는 환경관리센터로 운반해 즉시 처리했다.

청소는 체전 개최 하루 전인 17일 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장성군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노면정소차를 운영한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도 지역사회 장애인체전 개최를 맞아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

그밖에 마을방송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및 탄소중립 실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장성군 최초로 개최되는 제 64회 전남체전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공설운동장 등 종목별 경기장에서 열린다. 제33회 전남장애인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된다. 양대 체전 기간에만 약 3만 4000명 규모의 선수단과 관람객이 장성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황해연 기자

광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광양시와 구례군 양 지자체 공직자들이 고향사랑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인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실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광양시와 구례군 소속 공직자들이 각각 350만 원씩 총 700만 원 규모의 기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기부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지역 농특

광양시-구례군, 고향사랑 상호기부로 지역 상생 협력 실천 양 지자체 발전 응원하며 아름다운 동행에 앞장

산물로 구성된 고향사랑기부제 담례품을 체험해보므로써 상대 지역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광양시와 구례군은 이번 상호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효과를 널리 알리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탁영희 광양시 총무과장은 "이번 상호기부는 지역 간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라며 "공직자들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신선호 기자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지역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 참여자는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담례품 또한 받아볼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4일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에서 HD현대삼호, HD현대삼호사내협력사협의회,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건강 One plus'를 운영한다.

2023년 업무협약으로 영암군에서 첫 시작된 이 사업은, 기업 직원이 금연, 절주, 신체활동 증진, 심뇌혈관질환 예방 등 7개 보건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영암군 건강프로그램이 기업 사업장으로 찾아간다 HD현대삼호 등과 업무협약 맺고 '사업장 건강 One plus' 운영

찾아가 지원하는 통합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 동안 사업 시행 결과, 참여 기업 직원의 만족도가 높았고, 기업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속 요구도 있어, 영암군은 이날 사업 확대 업무협약에 나섰다.

올해부터는 전남서부근로자건강센터가 사업에 함께 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사업, 소음성난청 예방관리사업 등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

영암/김희선 기자

최문형 영암군보건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해 지역 기업과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것이다. 기업 임직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지역 보건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고흥군(공영민 군수)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발굴을 함께할 제 4기 고흥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을 이달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하는 청년 참여기구다.

모집 인원은 30명 내외로, 공고일(4월 9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고흥군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청년으로 청년 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

고흥군,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청년 목소리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 청년과의 소통 창구 확대

다. 협의체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고흥군청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등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선발 결과는 5월 초 개별 통보되며, 선발된 협의체 위원들은 위촉식을 시작으로 2년간 청년정책 의제 발굴과 제안, 정책 모니터링, 청년의 날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제4기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공개모집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어린이날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즐거운 풍선의 나라로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전남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에서 “기차마을 대탐험! Hi Fun Balloon Festival” 특별 이벤트가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이벤트 기간 섬진강기차마을 전체가 마법 같은 풍선의 나라로 변신한다. 기차마을 곳곳이 다양한 캐릭터와 각양각색의 풍선 장식으로 꾸며져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무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5일 어린이날 당일 중앙 무대에서는 디즈니 OST 콘서트, 일투전 매직쇼, 명작 아동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등 흥미롭고 수준높은 공연이 열리고 행사기간 내내 버스킹 공연으로 마술쇼, 버블쇼, 풍선아트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 행사로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아트' 등 7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특히 '애완조류 체험전', '어린이 목공예 체험', '이동식 천문대'와 같은 이색적인 코너가 마련되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다. 참여형 이벤트로는 '인기 캐릭터 퍼레이드 및 포토타임', '랜덤플레이댄스', 'SNS 인증샷 이벤트', '보물찾기 이벤트'가 마련되어 더욱 풍성한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다.

곡성군 관광과 관계자는 “환상적인 풍선의 세계에서 맘껏 뛰놀며 잊지 못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곡성/이경수 기자

